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3주일 (성요셉 성월)
 제27권 15호 (다해) 2007.3.11

[묵상]



새로 나기

비는 내려 땅을 적실 뿐이지만
 비를 받아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땅속에서 푸른 목숨으로 새로 나기는
 스스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애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3단계 종료)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이야기 성서반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이야기 성서반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십자가의 길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7:3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매룬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생)성낙호 요셉, 애플린 웨리아, 성지 순례 하시는 모든 분들과 인솔하시는 수녀님 & 신부님을 위하여
주 일 낮 미사	(연)김기하 요셉, 김창배 파스칼, 이인순, 데니스웨버,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생)장현숙 발바라, 강선규, 서희준 마테오, 오일순 헬레나 김자일 시몬,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 & 아네스가정 이정훈 안셀모 가정, 성체 성혈 봉사자들을 위하여

● 십자가의 길 기도 ●

사순시기 동안 교우들의 신심행사 중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 즉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이다. 고통의 길이라고도 하는 십자가의 길은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던 순례자들이 실제로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타 산까지 걸으면서 기도드렸던 데서 유래한다. 구전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께서도 예수 승천 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자주 걸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도 자주 이 길을 찾아 그분을 생각하고, 흠모하며, 눈물로써 기도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초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나 기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14-5세기경부터이다. 1342년 프란치스코회가 성지에 대한 관리를 맡으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는 하나의 신심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그 장소들에 대한 신심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들 사명의 한 부분으로 여겼으며, 이에 따라 더욱 대중화된 이 신심은 십자가의 길 각 처에 대한 신심에서 잘 표현되었다. 예루살렘 순례자가 지리적, 정치적인 장애를 받게 되자 유럽에서는 성지 모형의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신심은 먼저 세계 곳곳에 있는 프란치스코회 수도원들과 그 수도원의 성당들에서 일반화되었고, 이런 곳에서부터 근처 성당으로 확산되었다.

15-6세기에는 각 처의 숫자가 고정되지 않았으나, 1637년에 이르러서는 교황청에 의해 오늘날처럼 되기 시작하였다.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모든 교회에 십자가의 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처의 숫자도 14처로 고정시켰다. 19세기에 이르러 이 신심은 전 세계에 퍼져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기도로서 특별히 사순시기에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성당이나 그 밖의 공적인 기도 장소에서도 개별적으로 혹은 사제와 함께 공동으로 행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길은 14처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15처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1975년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끝을 맺는 이런 형태의 십자가의 길을 승인하였다.

십자가의 신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신심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틀이 아니라 각 처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난 사건들을 통해 이끌어 내는 기도와 묵상이다. 이 신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기념하고,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로써 우리가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4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심,
-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 제3처: 예수님께서 넘어지심,
-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
-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짐,
- 제6처: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
- 제7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
-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
-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
- 제10처: 악당이 예수님의 옷을 벗김,
-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
-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 백삼위 전례연구 위원회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 3,1-8ㄱ. 13-15
화답송	◎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전례성가 65 사순 제3주일 C해> ○야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안의 온갖 것도 그 이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야훼님 찬양하라. 당신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말라,◎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낮게 하시니 죽음에서 내 생명 구하여 내시고 은총과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 ○하느님은 의로운 일을 하시고 억눌린 자 권리를 도로 찾아 주시도다. 모세에게 당신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 일들 알리셨도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 10,1-6.10-12
복음환호송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복 음	루카 13,1-9
영성체송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주님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둥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치나이다. 주님의 집에 사는 이들은 행복하리니, 그들은 늘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토요특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 ~ 58		
입당	150	154
봉헌	268	257, 272
성체	402	299, 296
파견	154	149

회개와 은총

잡초란 무엇일까요? 어렸을 적에는 쓸모 없는 나쁜 풀을 잡초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차차 배움을 더하면서는 경작 목적에 반대되는 모든 풀들을 잡초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밭에 어찌다 돌아난 참외덩굴은 잡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이의 수확을 방해하니 뽑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이런 전제 하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들이 흡수할 양분들을 빨아들이며 자랐습니다. 아마도 포도나무의 결실이 그만큼 줄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도적인 잡초입니다. 이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포도 재배인을 불러 그 나무를 베어 버리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지시입니다. 그 재배인은 무화과나무를 감싸고 주인에게 한 해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청합니다. 거름을 주고 보살펴서 과일을 맺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포도 재배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나무에 이미 어느 정도 공을 들였기에 아까운 마음도 있어서 더 정성을 들여 그 나무를 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의 뭉이 남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제 모습을 멋지게 하기 위해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열매를 맺으려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오늘 복음에서는 회개라는 주제 아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5)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 재배인의 말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회개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루는 고독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포도밭에서 재배인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이라는 거름이 우리를 돕습니다. 이 사순절이 회개의 시기라면 그 회개를 돕는 예수님의 은총이 있어서 또한 은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 전반에서 회개란 말은 별 가치가 없는 듯합니다. 비리폭로가 자주 생기고 그 때마다 진실게임이 벌어집니다. 영터리 비리폭로도 있고, 실제로 자행한 비리도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모함이니 마녀사냥이니 하며 부정합니다. 양쪽 모두 끝까지 거짓말 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이 밝혀져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깁니다. 지도층의 이런 태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누가 만일 비리를 낚으치고 회개하면 모두가 둘러서서 “그래, 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니 이제 물러나라” 하고 손가락질하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은총)을 베푼다면 훨씬 쉽게 회개할 용기를 가질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은총을 주시듯이 우리들 스스로도 회개를 위하여 서로 서로 사랑을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백남용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진향 (아네스)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최진수 (에우세비오)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최태훈 (아우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오세원 (아타나시오)
제2독서자	김정은 (세실리아)	황지영 (안젤라)	박진숙 (엘리사벳)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하/갈 1, 3반	제물봉헌자			토 남 2, 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목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목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지난 주간 합계 : 3,727단 ☞ 총 합계 : 102,124단

◆ 사순절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을 위한 고통의 길에 주님과 함께 합니다.

- 사순 제3주간 금요일(3월16일) : 토렌스 북구역
- 사순 제4주간 금요일(3월 23일) : 하버/칼슨 구역
- 사순 제5주간 금요일(3월 30일) : P.V. 구역
 ※ 기도시간은 오후 7시30분입니다.



- ◆ 사순절 특강
 - 3월13일(화) : 성령세미나 (오후 8시, 성프란치스코)
 - 3월20일(화) : 구 마리아네 수녀
 - 3월27일(화) : 이 사피엔치아 수녀
 ※ 특강 시간은 오후 7시30분입니다.

- ◆ 사순 판공성사
 - 3월28일(수) 오후 7시 참회예절, 7시30분 고해성사
 -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판공성사를 받습니다.

- ◆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3월9일~11일)
 -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 63명의 신자분들이 성지순례 중입니다.
 은혜로운 순례가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백삼위 본당 자문위원회의
 - 3월26일(월), 오후 7시, 사제관

- ◆ 한국 성모자 순교자 부조상 전립기금 본당신자 1인당 \$6씩
3월18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봉헌해 주시기바랍니다.

◆ 주일학교 사순피정 @ Crestline Retreat House

❖ 11~12학년, 배론 청년회와 함께

- 3월16일(금)~17일(토)
 출발 금요일 오후 7시30분, 도착 토요일 오후 9시30분
- 피정비 : 1인당 \$20 문의 : 변안젤라 920-4149
- 준비물 : 성경, 목주, 세면도구, 필기도구, 침낭
 따뜻한 겉옷

❖ 6~10학년

- 3월23일(금)~25일(주일)
 출발 금요일 오후 5시30분, 도착 주일 오후 4시
- 피정비 : 1인당 \$65 (개인부담 \$40, 성당 보조 \$25)
- 문의 : 변안젤라 920-4149
- 준비물 : 성경, 목주, 가족사진, 필기도구, 세면도구, 침낭
 따뜻한 겉옷.

◆ 성서모임 안내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거룩한 독서는 기도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참된 삶의 힘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말씀에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수요일 반 : 오전10시30분, 강당, 3월14일 개강
- 금요일 반 : 오전 10시, 강당, 3월16일 개강
 오후 7시30분, 강당
- 신청 : 이복임 엘리사벳 (310)516-0818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 환영합니다. ☉

지난 주에 저희 본당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 김용 스테파노 & 박문주 엘리사벳 (토렌스 서 2반)
 자녀 : 김정우 마티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김관기	김교복	김기정	김미경	김병태	강순복	김관기	김교복	김기정	김미경	김병태
	김선제	김선희	김옥보	김완태	김원모	김철민	김선제	김선희	김옥보	김원모	김철민	김철웅
	김철웅	김충섭	김현숙	김형순	노천수	노혜숙	김충섭	김현숙	김형순	노천수	문은주	민기남
	류인섭	문은주	민기남	박광자	박상준	박재철	박광자	박상준	박재철	박정희	박종열	박준구
	박정희	박종열	박준구	방세훈	방정복	배기엽	방세훈	배기엽	손석조	신중철	안재만	엄혜은
	손석조	신중철	안재만	양은순	엄영희	엄혜은	오옥순	오일순	오진자	유정복	유철희	유희연
	오옥순	오일순	오진자	유정복	유철희	유희연	이근모	이기성	이명자	이병호	이영희	이용무
	이근모	이기성	이명자	이병호	이연행	이영희	이은록	이인석	이정희	장숙환	장영우	정재호
	이용무	이은록	이인석	이정희	장숙환	장영우	정재호	조경림	조동욱	주대중	지경수	천광락
	정재호	조경림	조동욱	주대중	지경수	천광락	최귀환	최기남	최상만	최애경	최의수	한혜숙
	최귀환	최기남	최상만	최애경	최의수	한혜숙	현석주	홍석철	홍숙자	황인중	황학수	황인중
	현석주	홍석철	홍숙자	황인중	황학수	황인중	박제이콥	영희가보라	한길선례			
	박제이콥	영희가보라	한길선례									
	합계 : \$7,870											
	미사헌금	\$2,763	특별목적헌금	이근모	감사헌금	김선제	이정희					

공지사항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 **양업회 주체-메디케어 파트 D (Medicare Part D) 설명회**
 - 3월18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강사 : 김마틴
 -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처방약 커버에 대한 설명회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M.E. Sharing**
 - 3월16일(금), 오후 7시,
 - 오스테파노 & 요안나 댁 (310)922-1502
- ◆ **백삼위 골프 대회**
 - 3월24일(토), 오전 10시, Recreation Golf Course
 - 크리스리 부동산에서 종합 선물 3세트 기증해 주셨습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3월 11일 : 토렌스 동 2반 (김밥 \$3)
 - 3월 18일 : 하버칼슨 2반 (수제비 \$3)

남가주 소식

- ◆ **제4차 영적성장을 위한 감성 수련 피정**
 - 3월23일(금)~25일(주일)
 - 지도 : 문종원 신부 (서울 대교구 성령봉사회 지도신부)
 - Temecula 꽃동네 피정의 집
 - 문의 : 951-302-3400 ● 수강비 : \$140
 - 준비물 : 침낭, 세면도구, 두꺼운 옷, 편안한 신발
- ◆ **'외로움'에 관한 영성적고찰**
 - 주제 :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 3월24일(토) 오전 10시~ 오후5시, 성 아그네스 성당
 - 문의 : (818)321-9505 ● 회비 : \$20 (점심포함)
- ◆ **한국어 혼인 강좌 신청**
 - 4월14일(토) 오전 8시
 - 신청마감 : 4월2일(월) ● 수강비 : \$50
 - 성 제임스 성당, 강당
 - 4651 Dunsmore Ave., La Crescenta, CA 91214
 - 연락처 : (818)248-0496, (818)926-9687

사람을 구합니다.

❖ Bookkeeper 구함❖

- 분야 : Pharmacy에서 bookkeeping 하실 분
- 자격 : Fluent English
- Quick Book, Excel Experience required
- 문의 : (213)820-7636

이번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	오후 1시, 각방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김양금 안나 518-3041 3/24(토) Field Trip (Flower Field, Carlshad)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정정숙 레아	정정숙 레아 791-5696
	4	권본경 율리아	형제반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999-5677	이은록 요셉 999-5677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배기엽 클레멘스 325-7733 3/16(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박광자 소화데레사 533-9312 3/14(수) 오전 10시30분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장주란 마리아 320-3662 3/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차장) 938-3255	권병연 리디아 938-3255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908-5544 3/18(주일) 오후 5시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퀸테만 실베스터 989-9089 3/17(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클라라	임성택 요셉 548-8427 3/17(토) 오후6시
	2	김명재 아가다	허정자 텃다 377-3820 3/17(토) 오후4시
	3	진애경 율리아나 541-5370	
	4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어느새 내가 많이 성숙해져 있고,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발전해 갈 내 모습을 생각하니
내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착하게 살려는 의지가 강같이 흐르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이 의지가 훼손되면 괴로워하니
내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내 마음에는 큰 욕심이 없지만 작은 욕심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불만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로 낙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내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언제나 맑은 얼굴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를 따뜻하게 대하고
그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마는
내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내 발 길은 언제나 부지런하여 맡은 일에 성실하므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해지는 나의 태도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있고 그 꿈을 평생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그 꿈을 향해 성실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도
부모로서, 사회인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의연히 나의 의지를 지키면서
조그마한 빛이라도 나를 통해 밝히기를 소망하고 있으니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요안(요한)신부님 / 3월6일 사순절 특강 중에서...